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20. 12. 3.(목) 총 3매 (본문2, 참고1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강윤진, 주무관 송승섭 • ☎ (044) 201-4006, 4013, 4008	
	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	담 당 자	• 팀장 한정민, 차장 박주영 • ☎ (054) 811-3570, 3575	
	국가철도공단 재산용지처	담 당 자	• 처장 이재우, 부장 오창환 • ☎ (042) 607-3811, 3832	
	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	담 당 자	• 처장 최윤환, 부장 박용호 • ☎ (042) 615-4239, 4240	
	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	담 당 자	• 본부장 김재성, 부장 장문수 • ☎ (070) 7435-9001, 9004	
	수도권서부 고속도로(주)	담 당 자	• 본부장 설주석, 팀장 김진필 • ☎ (070) 8031-2774, 2775	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수도권 10개 공공 유희부지(2.4만m²)에

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합니다.

- 4일부터 30일간 모집 · 10일 사업설명회...내년초 선정 · 발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,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상균), 한국철도공사(사장 손병석),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(사장 박종혁), 수도권 서부고속도로(사장 김주동)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희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한다.
- 코로나-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,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·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희부지 10개소, 2.4만m²를 공급하여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(T/F)를 구성하여 활용가능한 장기 미사용 공공부지 35개소, 13.7만m²를 발굴하고,

- **업계 수요조사, 기관합동 현장실사 및 관련법령 검토** 등을 거쳐 업계에서 희망하고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활용가능한 10개소를 연내 공급하기로 하였다.
 - 공급부지는 5개 기관이 관리 중인 **고속도로 고가하부**(5개소, 1.4만㎡) 및 **광역·일반철도**(5개소, 1만㎡) 역사 유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입주 대상 업체는 현재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**택배 사업자로, 중소·중견업체**는 업체선정 시 **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.**
- 또한,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**종사자 휴게시설** 및 **자동분류기 설치 여부**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, 아울러 차량통행·소음 관리 등 지역주민 민원 **최소화** 노력도 평가한다.
- 업체선정은 5개 기관 합동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**적격업체**(80점 이상) 결정하고, **경쟁입찰**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.
-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**12월 4일(금)부터**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**모집공고문**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.
 - 아울러, **12월 10일(목) 한국통합물류협회**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부지 설명,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, 공공에서 미사용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급할 것”이라면서,
- “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공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(☎ 044-201-40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